

인간과 하천

1

River & Culture



김길중 | 전주 싹다리 만들기
시민모임 자문위원
(maisan2006@naver.com)

주민주도에 의한 싹다리 만들기, 하천유역공동체의 문화를 지었다

1. 들어가며

농경사회에서 가을에 추수를 마친 두 동네의 주민들이 서로 기일을 정하고 역할을 분담해 뒷산에 있는 나무와 잔가지를 구해 다리를 만들고 작은 잔치를 벌여내던 풍습이 있었다.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80년대 초반까지 이런 풍습들이 남아있었다. 어렵지 않게 목격하고 직접 건너본 세대가 50대쯤에 해당하고 40대라도 어렵듯하게나마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한다. 근대가 아닌 현대사회에까지 이어지던 이 풍경이 사라진 것은 30여년 전, 새마을 운동이 온 나라를 개량하고 다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싹다리와 나무로 만든 작고 불편한 다리 대신에 시멘트로 만든 튼튼한 다리들이 하천과 개울을 이어주게 된 것이다.

이 풍광이 다시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를 넘어서부터였다.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지역에서 관광자원의 하나로써 옛 풍습인 싹다리를 재현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많은 지역에서 그래도 흔히 볼 수 있다. 아주 잊혀진 것만은 아닌 전통과 향수에 기댄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통의 복원을 넘어 실제로 예전의 풍습 그대로 주민들이 싹다리를 만들고 이용하는 일이 얼마전부터 전주에서 시작되었고 정착되었다. 관광코스에 등장하는 싹다리가 아니고

지역마다 벌어지는 축제에 소품으로 등장하는 싹다리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건너고 활용하는 다리로서 기능하는 제대로 된 싹다리의 복원이 도심속 아파트 숲 한가운데서 벌어진 것이다.

2008년부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일대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울목 싹다리가 세해째 만들고 철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여울목 싹다리는 단순한 다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마을 만들기로 승화되었고, 자연형 하천의 모범으로 손꼽히는 전주천에 가장 어울릴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하천유역의 사람들이 다리를 통해 마을을 만들어가는 삶속에서의 문화를 지은 것이다.

그 과정에 대한 소개를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협의하는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에서 전주천 복원 1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에 발간한 '전주천 10년의 기록'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2. 글을 쓴 이유

전주천 하류 삼천과 만나는 지역에 주민주도에 의해 만들고 관리하는 싹다리 놓기가 두해 짝 진행되었다. 준비과정까



지 4년에 걸친 과정에서 도심속 쉼다리라는 이색적인 소재와 이면속의 도시공동체 형성과 도시형 마을 만들기로 인해 주목받고 있다.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이 10년째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민간주도와 관과 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사례로 판단하고 쉼다리 놓기 2년을 정리하여 그간의 과정과 평가해볼 만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 쉼다리 만들기의 진행과정

서신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자들은 요사이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입주 전부터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¹⁾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통학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청원을 비롯한 활동으로, '녹색아빠회'²⁾라는 모임을 통해 좀 더 진척시키기도 하였다. 아울러 단지 주변 하천을 청소하고 갯벌들과 개나리 식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민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과 작은 도서관 만들기 등을 의제화 하여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입주전 활동이 권익 찾기 중심으로 벌어진 활동이었다면, 입주 후에는 스스로 마을과 공동체를 가꾸

기 위한 마을만들기와 아파트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단지옆 전주천 건너 하가지구 쪽으로 하천 둔치를 연결시키기 위한 고민과 연구³⁾가 모아졌다. 관에 구조물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생태와의 공존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의 취지를 담아 쉼다리를 직접 설치해 보자는 데로 이어지게 되었다.

4. 관과 민 사이의 장벽, 소통으로 넘어서다.

쉼다리 설치를 준비하며 이 지역 주민들은 관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쳤다. 이전의 다른 사례가 축제기간에 등장하는 한시적인 쉼다리였고, 실제 교통하기 위한 다리가 아닌 한적한 시골에 경관 조성과 관광목적으로 만들어

- 1) 보통 입주자 카페라 하는데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정보교류와 계약자의 권리 찾기를 위해 만든다. 계약 후부터 활동하고 입주 직전과 직후에 가장 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 후까지 이어져 주민공동체운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작은도서관 만들기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2) 녹색아빠회의 그것처럼 아빠들의 사선과 참여를 통해 아이들의 통학길을 챙겨 보자는 취지에서 격주 토요일 교통도우미 활동과 통학길에 대한 점검과 민원제기 등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2년간 지속되었다.
- 3) 최초의 고안은 징검다리, 목교 등이었지만, 주변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취지에서 쉼다리로 모아졌다.
- 4) 주무관청이 최초에는 전주시 생태복원과였고 행정적 절차상 덕진구청 건설과로 이관되었다. 이외에 전주시 문화관광과 등이 관계하였다.



진 경우가 대부분으로, 도심 속에 일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과 관 사이에는 처음부터 시각 차이와 함께 난관이 조성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와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의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였다. 주민과 관련단체, 그리고 주무관청이 함께하는 형태의 시민워크숍⁵⁾을 2차례 개최하고 시의원이 중재하여 관과 민 사이의 소통채널을 만들었다. 법령상의 어려움과 관리상의 난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 덕분에 서로가 만족하는 합의의 결과물⁶⁾이 도출되었다. 이후 전주시에서 이룬 이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었다.

5. 쉼다리가 남긴 몇 가지 의미들

쉼다리 놓기는 실상 주민공동체의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있어 상징이자 소재였을 뿐이다. 이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은 이웃과 마을, 공동체를 자각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잘 가꾸어 나가고 관과의 적절한 협력을 이룬다면, 객체로 머물러 있는 시민이야말로

도시만들기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확인했다. 민간주도의 움직임이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만들기의 자산으로 활용되어야함을 확인한 셈이다.

우선, 민관 협력에 의한 하천 가꾸기(도시 만들기) 모델을 만들었다. 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관협력(거버넌스라 부르는)을 통한 도시 만들기를 하는데 있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만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필요로 하거나 느끼는 관과 민은 많지만 사이에 놓인 장벽을 소통해줄 적절한 노력(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 역할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협력 보다는 대립으로 나가거나 일방적인 노력 끝에 좌절하기 쉬운 여러 사례들과 달리 협력에 필요한 서로의 노력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결실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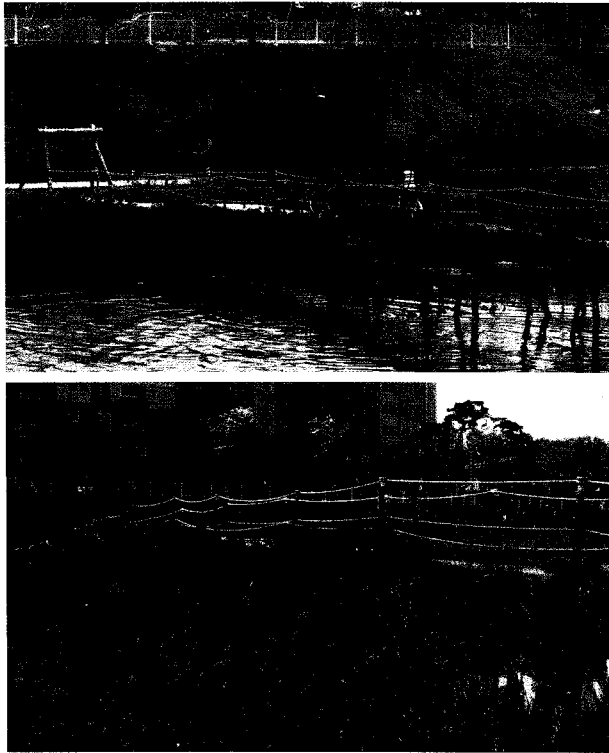
둘째, 시민이 하천의 주인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민과 관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자연형 하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주민들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된 관리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하천관리에서 객체가 되어있음을 체

5) 1차는 주민공동체 주도의 쉼다리 만들기 어떻게 볼 것인가였고, 2차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해석해보는 쉼다리 만들기라는 주제였고 시청, 환경단체, 의제21, 문화단체와 주민조직이 참여하여 논의하였다.
6)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난간의 설치와 야간통행제한 등의 조항과 우기 이전에 철거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여 가을(10월)에 놓고 봄(5월)에 철거하기로 하였다.

힘하였다. 시민은 무언가를 창안하거나 제기해도 거부되는 것에 익숙해있지 직접 도시를 가꾼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민의 발상은 규제의 대상이요 허가의 대상이라는 현실에 익숙해진 시민이, 관과 협력하고 동반자 관계로 서며 주체로 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관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서로가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창조성을 어떻게 발현하게 만들지에 대한 민의 노력과 관의 적절한 응답이 이루어짐으로써 하천 관리에서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 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과 문화가 스며있는 전주천으로 만들어야 함을 섰다리에서 발견하였다. 자연형 하천의 면모에 걸맞으며 연중 만들고 이용하고 철거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용⁷⁾이 가능하였다. 섰다리는 작위적이지 않게 자연형 하천을 생태문화관광의 자원으로 만들어 갈 실마리가 담겨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⁸⁾을 열어낸 섰다리에 대한 점용허가와 재정 지원에 머무르는 수준에서 나아가 실제적인 협력⁹⁾을 구축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풀뿌리 주민조직이라 할 섰다리 시민모임 중심의 민과 관, 그리고 둘 사이를 중재할 지방의원과 주민조직의 마을만들기를 잘 프로그래밍해줄 시민단체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를 느끼며 준비 중이다. 🌐

6. 과제와 전망

전주천 서신동 섰다리는 올해 삼천의 세내 섰다리로 확대되었고, 한옥마을 쪽의 섰다리가 논의되는 등 확대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생태하천을 복원한 태화강의 앞길을 전주천 섰다리에서 찾고자 했던 울산방송의 시선처럼 가치중립의 '자연형 하천'을 넘어 시민이 주인으로써 가꾸어가는 하천, 유역공동체의 삶과 문화가 담겨있는 하천으로 만들어가는 핵심적 과제는 민관협력의 강화가 아닐까 싶다.

- 7) 아이들의 체험학습, 백일장 사생대회 등의 프로그램과 섰다리에서 이루어지는 정월대보름 잔치에서의 다리 밟기 등을 말한다.
- 8)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창조성을 관이 지원하는 형태의 모델
- 9) 재정지원 확대 등을 말함이 아니라 시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생긴 부산물을 섰다리의 삶으로 활용하게 한다던지 하는 내용이다. 관과 시민 사이에 채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임에도 이 채널의 부재로 인해 시민모임은 삶을 사야만 했다. 접촉하고 담당한 행정관청의 부서는 많았지만 어느 부서도 섰다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지원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는 부서는 없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지원방안을 같이 고민해줄 파트너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